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2월 26일(주일) 제1137호



사진은 지난해 리더십 목양대회.

나그네와 함께하는 온누리공동체

3월 4일 오후 4시 서빙고 본당 '리더십 목양대회' 순장, 다락방장 등 신임리더십 672명 임명장 수여

온누리공동체 리더십 목양대회가 3월 4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교역자, 장로, 공동체 총무, 다락방장, 순장 등 공동체 리더십과 대학청년부 MC, 차세대 코치(총무)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리더십 목양대회는 온누리교회 리

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오를 다지고,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영성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場)이다. 이번 온누리공동체 리더십 목양대회는 당회서기 이철 장로의 기도, 안산M센터 연합과이어 특순, 신임순장 및 다락방장 임명식,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노규석 목사의 온누리M

미션의 이주민 사역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새로운 리더십 672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 신임순장 324명, 신임 다락방장 114명, 대학청년부 신임MC 110명, 신임 차세대코치 124명이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2월 23일 집계).

온누리M미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노규석 목사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이주민 선교 현황과 비전을 성도들과 나눌 예정이다.

목양대회 당일에는 교회 주차장 및 교회 인근 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촌역 4번 출구에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공동체별로 카풀을 하는 것이 좋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지하 1층 교회 식당과 두란노홀에서 성도들에게 국수를 제공한다.

이준호 목사(목회행정)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공동체 리더십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올해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해 나누는 뜻 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리더십들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3월 19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 주차장, 스티커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

3월 19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준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오야 한다. 셔틀은 이촌역

에서 교회, 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교회, 교회에서 양재역을 오가는 구간만 운영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교회와 이웃 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운동에도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문의: 02-3215-3434, 3436

오늘,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오늘은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이다.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강동 온누리교회 연합찬양사역팀이 1부, 2부, 3부 예배에서 특송을 하고, 본당과 로비에는 성도들이 축하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이 설치된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2008년 2월 24일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건대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창

립되었다. 2010년 10월 3일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강동 온누리교회로 거듭났다. 지역사회에 선행 영향력을 주고,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문화를 심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성도 1천2백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노숙자, 쪽방촌 주민들과 사랑에 빠지다

남대문5가공동체 섬기는 원은희 집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10)



노숙자들을 섬기는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원은희 집사.

웬만한 사람은 냄새난다고, 무섭다고 피하는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천사가 있다. '남대문5가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원은희 집사(강남A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남대문5가공동체는 노숙자들과 서울역 주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그곳에 가면 진심으로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원 집사를 만날 수 있다. 그녀의 행동과 삶이 그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사업장을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예배공간으로 꾸몄다. 바로 그곳이 한강대로 363-2번지 MS빌딩 2층에 위치한 희망홀이다. 그동안 남대문5가공동체는 서울역 주변 한 분식집 지하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렸다. 이번 달부터 원 집사가 꾸민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어둡고 비좁은 지하에서 햇빛 비치고 아늑한 새 예배처소로 옮겼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그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천사의 고백은 뭐가 달라도 진짜 달랐다. 하늘의 언어가 아닐 수 없다. 원은희 집사가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녀는 2013년 2월부터 양재 공화사역팀에 합류해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겉보기에는 수수하고 평범한 아주머니지만 여전한 사장님이다. 작지만 큰 영웅이다.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이 좁고 어두운 분식집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까워 밝고 아늑한 새 공간을 예배처소로 만들어줬다. 어디 그뿐이라.

“새벽기도를 나오던 분 중에서 갑자기 두 분이 3개월 정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기간 동안 거리에서 동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놔두선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새 사업장에 쪽방촌 주민 19명을 고용했다. 그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희망을 선물했다.

“단순작업이지만 다들 일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루에 담

배 한 갑씩 파우던 분이 일을 시작하고는 담배를 끊겠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생겨서 힘이 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섬김과 헌신이 가능할까. 돈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은 기피하는 일을 하기까지 마음먹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신앙의 암흑기에서 벗어나다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그녀도 처음부터 헌신적인 신앙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25년 동안 IT계열에서 일해 온 전문직 여성이다. 화려한 것 좋아하고, 꾸미기를 좋아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허름하고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그녀는 꼬꼬마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다. 대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녀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가나안 족속의 야기까지 다 죽이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더 이상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인본주의에 빠졌다.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책은 읽지 않고, 인본주의 서적만 보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더 크게 몰려왔다. 그때부터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했다. 신앙의 암흑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다. 회사 문제 때문이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조언을 듣고자 예전에 다니던 직장 선배를 찾아갔다. 그 선배가 그녀를 보자마자 대뜸 “요새 교회 나가니?”라고 물었다. 안 나가고 있다고 했더니 자신이 양재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한 번 나와 보라고 했다. 그 주 일요일에 바로 교회를 찾아갔다. 무려 3

년만의 교회 출입이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새신자 등록을 했다. 그때가 2005년 11월이었다. 다시 교회에 등록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컸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회사에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매일 아침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것이다. 한직으로 밀려 나겠거니 했는데 당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그녀는 충격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하게 마음에 동요가 일지 않고 평안하더라고요. 아마 직장에서 큐티하고 예배드리면서 외부 충격이나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백수생활이 한창이었던 2012년 10월 또 한번의 전환기가 찾아왔다. 부흥집회에서 프랜시스 찬 목사의 설교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프랜시스 찬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숙자를 보면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고, 홀소한 사람들도 데려와 같이 산다면서요. 그분의 삶이 참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노숙자 생각만 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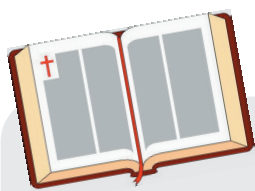
기회가 찾아왔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원형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노숙자들을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켰다는 내용이였다. 알고 보니 양재 공화사역팀원들이었다. 그렇게 양재 공화사역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남대문5가공동체 예배에 가게 되었다.

“처음 그곳을 방문한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쪽방촌 주민들의 모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거부감이 든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음이 분명하지요.”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남대문5가공동체 지체들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여거든요.”

그녀는 이 귀한 사역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믿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구속받고 제한받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사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믿는 삶이란 말씀에 통제 받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은 말씀에 통제받고, 지배받는 삶이 답답하고,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받는 삶이 답답한가요. 자유를 잃어버린 삶입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매우 답답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는 삶이라고 스스로 추측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종려 같은 물리적인 법칙과 생물학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지만 정신과 영혼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률이 있고, 인간본성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BBC라디오에서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죽고 죽이는 비참한 상황에서 C.S. 루이스가 강조했던 것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우쳤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무서운 사상은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규율과 법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자유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상입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옳고 그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자신은 합당하지만 타인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불안과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내 마음속에 갈등과 변민이 일어날까요. 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인정과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할까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위에 존재합니다. 인간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을 가져다 쓰던 간에 세상의 법과 규칙을 뛰어넘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육지를 뛰어다니고 싶다고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새가 “나는 왜 이렇게 날아다녀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이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창공을 나는 새가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주어진 법칙을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법칙에도 구속되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 법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에 복종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이 살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기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며, 목적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때 정말 행복한 것이

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 하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1절).

말씀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이 말씀에 복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획한다고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하셔서 다른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반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2절).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신 5:32).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목에 매고 네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라”(신 6:6-9).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영향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거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룰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신 30:11-14).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에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고, 바다 밑에 있어서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해석하기 어려워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귀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순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워서 실천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을 때 발 씻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은 행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유혹에 넘어져 멸망하지 않는다

첫째, 유혹에 넘어져 멸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브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3-4절).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위기가 왔을지라도 말씀에 복종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에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작은 유혹에 쓰러지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우리가 잘 모르고, 잊고 있는 '3.1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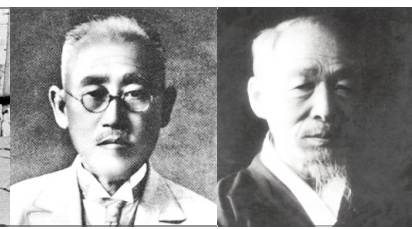
1. 3.1운동과 기독교
2. 한국의 잔 다르크 유관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기념사진.



기생들까지 만세운동에 나선 모습.



3.1운동에 앞장선 남강 이승훈(좌), 신석구 목사(우).

3.1운동의 원동력은 기독교

기독교가 3.1운동 기리는 주체되어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기미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다. 지금으로부터 98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3.1운동이 시작됐다. 만세운동은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5월까지 근 3개월 동안 2천 번이 넘는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했다. 1년 여 동안 이어진 3.1운동은 해외에까지 확산되었다. 말 그대로 거족적인 항일민족 독립운동이었다. 세계사에 길이 남을 3.1운동이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은 기독교였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역사기록화). 이들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만큼 기독교가 3.1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반증이다.

3.1운동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의는 실로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1운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2010년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3,9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삼일절 인식 설문조사 결과, ‘삼일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이 43.7%에 불과했다. 또 다른 매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초·중·고학생들에게 삼일절의 의미를 물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환자를 고쳐주며 함께 독립운동한 날, 태극기 다는 날, 빨간 날(공휴일) 등 보고도 믿지 못할 수준의 대답들이 나왔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크림 먹는 날로 통용된다고 한다.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자사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숫자 ‘31’을 활용해서 매달 31일과 매년 3월 1일을 ‘31데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기본적인 역사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3.1운동, 자주독립 의지 알리고 한민족사(史)에 새로운 전기 마련

3.1운동은 국권을 침탈당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굳건한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우리 선대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다. 단순히 빨간 날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날도 아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3.1운동을 계기로 한민족사(史)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첫째, 3.1운동에 기초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26년 동안 조선의 독립투쟁과 국토회복운동의 중심체가 되었다. 일제에 항거해 민족 독립을 추진하는 거족적인 구심점이 되었다.

둘째, 3.1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끼쳤다. 3.1운동에 자극을 받은 세계의 피압박 약소국가들이 해방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5.4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불복종 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다.

셋째, 3.1운동 이후 일본은 폭압적인 무단통치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일부 완화한 문화통치로 통치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는 기독교의 희생과 투쟁이 숨어 있다

3.1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기독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3.1운동에 앞서 일본에서 발표된 28독립선언의 주체가 기독교였고(동경YMCA),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 1920년 7월 3.1운동 주범으로 재판을 받은 이른바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24명이 기독교

인이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독립사상은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공존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도 기독교의 영향이다.

3월 1일 만세운동 첫날, 서울을 제외한 전국 8개 지역에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 의주와 평양은 목사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만세운동의 주동세력이 뚜렷한 31개 지역 중에 기독교가 앞장선 지역이 78개, 천도교 66개, 기독교와 천도교 합작 42개 지역이었다. 기독교가 25~38%를 차지했다. 체포, 투옥자 수를 봐도 기독교인들의 수가 압도적이었다. 1919년 6월 30일까지 투옥된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를 차지하였고, 12월 말까지 복역한 19,525명 중에 기독교인이 3,373명으로 17%였다. 천도교인은 11%였다.

당시 조선의 인구와 대비해 보면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는데 이들 중 기독교인은 1.3~1.5%를 차지했다. 약 20만 명 정도였다.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가한 비율은 20~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독교가 3.1운동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1운동 이후 입은 교회의 피해 현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제의 박해로 입은 피해가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가장 심각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다.

그해 10월 4일 열린 장로교 제8회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사살 및 타살된 신자 52명, 체포된 신자 3,804명(이 중 목사·장로 134명, 장로교 전체 목사·장로 중 13%에 해당), 교회당 파괴 12동, 학교 파괴 8곳이나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3.1운동의 선도·참여·지지·비지지 계층 가운데 주로 선도 계층이었으며 참여·지지 계층에도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기독교인들이 각종 독립운동과 독립단체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서재필의 독립협회의 근원도 기독교였다. 서재필은 미국 망명시절 기독교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의학공부를 하면서 기독교화 되었다. 그는 망명생활을 접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했다. 독립협회를 이끈 지도자 윤치호, 이상재, 남궁억 등도 기독교계 인물이었다. 독립협회의 청년전위대라고 할 수 있는 배재학당의 협성회도 기독교계 인사들이었다. 독립신문 주필이었던 주시경을 비롯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신홍우(1920~30년대 YMCA를 통해 기독교사회운동을 펼친), 한국전쟁 중 납북돼 처형된 한국인 최초 신학박사 남궁혁도 배재학당의 협성회원이었다.

이렇게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에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투쟁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는 3.1운동의 의미도, 기독교의 영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교회와 기독교가 3.1운동을 기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환상의 전도 짝꿍 박인숙, 임성숙 권사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우리는 애니콜”

여기 환상의 전도 짝꿍이 있다. 박인숙 권사(안양평촌공동체)와 임성숙 권사(강서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둘이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른다. 전도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녀들에게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전도 도구다. 공감, 칭찬, 경청 등의 대화기법이 몸에 배인지 오래다. 음식을 이용해서 전도하기도 한다. 그녀들을 만나면 도저히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무려 10년 동안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녀들을 ‘애니콜’이라고 부른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전국 방방곡곡 전도하러 다니는 박인숙(좌), 임성숙 권사(우).

박인숙 권사와 임성숙 권사는 전도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인다. 심장박동도 빨라진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토록 전도열정이 뜨거운 그녀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나긋한지 모른다. 듣기만 해도 평안해진다.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한 데 둘이나 된다. 번갈아가며 얼굴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전도콜센터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 전도하러 가려는데 마침 저희 두 사람만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함께 전도했는데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서로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전도콜센터는 전도요청이 오면 전도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온누리전도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그녀들이 처음 만난 것이 벌써 10년 전이다. 10년 동안 함께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전도현장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요. 이것을 순발력 있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현장에 가면 둘은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다. 척하면 척이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물이 전도 도구예요. 전도 도구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추운 날씨도 전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의 겨울에 빙태어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어떤 날은 직접 만든 음식을 전도 도구로 활용한다. 임성숙 권사의 요리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임 권사는 한 요청자에게 전도대상자가 부침개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즐기는 임 권사가 부침개와 반찬을 챙겨 전도하러 갔다. 반응이 정말 좋았다.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시지 않던 분이었는데 부침개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깐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날 복음을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천사가 왔다 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다. 그 어르신의 딸에게 평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기회복에 좋을 음식이 뭐가 있는지 고민했다. 조기가 떠올랐다.

정성스럽게 조기조림과 샐러드를 만들어 그 어르신께 갔다.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어르신이 음식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셨다. 여기에 박 권사가 그 어르신의 마음을 공감해주자 어느새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또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복음과 사랑 그리고 꿈

박인숙 권사와 임성숙 권사는 함께 전도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 전도요청이 오면 어디든지 달려가자는 것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병상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요청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갔다. 그들은 무엇이든 전도 요청이 오면 이렇게 외쳤다.

“애니콜 왔다!”

그녀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자녀의 도움 없이 살고 계신 어르신이었어요. 자존심이 높으신 분 같았어요. 먼 곳을 마다 않고 달려갔지만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형식적인 대답만 하셨고요. 한 번은 딸이 그 어르신을 서 울로 모셔왔더라고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했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사실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선물로 남성용 화장품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주 조금씩 그 어르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복음을 전하자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

“내 진심으로 그분을 한 번 믿어보겠소.”

그녀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고 한다.

“꿈이요. 전도대상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 되고 싶으신지 물으면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에도 복음과 사랑 그리고 꿈을 선물했다. 그녀들을 만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돌이키고 살아났다.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

전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박 권사, 임 권사처럼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들과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데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늘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전도자의 필수조건이다.

“무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키려고 하면 전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힘들 때 꼭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라고 권면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들도 처음부터 전도열정이 뜨거웠던 것은 아니었다. 박인숙 권사는 전도하면서 전도열정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100점 만점에 10점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90점은 전도하면서 얻었어요. 전도하면 무엇보다 내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고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전도열정이 자연스럽게 뜨

거워집니다.”

그야말로 선순환의 반복이다. 임성숙 권사도 박 권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예요. 내가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담대하게 선포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사는 거죠.”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접촉점만 만들어주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거든요.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데 자녀들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온누리전도학교 16기 훈련생 모집
일시: 3월 19일~5월 21일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장소: 서빙고 홍보관
신청: 아이스쿨
회비: 4만원
문의: 02-3215-3214

전도콜센터 전도대상자 신청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서빙고 홍보관
문의: 010-5310-5481

전도폭발 24기 훈련생 모집
일시: 3월 6일~5월 29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신청: 아이스쿨
회비: 7만원
문의: 주간 010-7900-3908
저녁 010-3388-0676

아직 끝나지 않은 ‘더 멋진’ 이야기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자 박현규 형제

지난 12일 네팔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 구사업 완료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진피해로 붕괴되었던 산골마을을 불과 10개월 만에 재건해냈다. 이 멋진 이야기 속에 감춰진 청년이 있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1년 동안 봉사한 박현규 형제(요셉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자로 네팔에 파송되었다. 행정업무를 도맡았지만 때로는 삽질도 하고, 자재도 날랐다. 1분 1초를 아껴가며 1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비전과 소명을 되찾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지난 1년간 네팔에서 헌신한 박현규 형제.
◀ 고레다라 은혜교회 건축현장.

박현규 형제도 남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청년이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자로 헌신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상에 치이고 신앙을 고민하고, 취업을 걱정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건축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학연수까지 했는데 유학을 가지 못했어요. 가 고자했던 학교에 떨어졌거든요.”

이제 취업 말고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국내 건축업계 동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근무조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다. 박봉에 야근은 기본이었다.

“취업한 친구들을 보니까 월급은 1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매일같이 야근을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퇴근해서 찜질방에서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출근 하는 게 일상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굳이 건축만 고집할 필요도 없었다. 지인과

함께 RC카(무선조종 자동차)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은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또 다시 방향을 하려던 찰나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네팔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 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그의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1년을 해외봉사에 투자하기에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그 1년 동안 누군가는 스펙을 쌓고, 또 누군가는 연차를 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부르심에 순종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건축을 전공한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컸고요.”

그렇게 2016년 2월 네팔 땅을 밟았다. 네팔에서 보낸 1년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돈을 보면 직업, 비전을 보면 사명

박현규 형제는 해발 1,3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가옥 69채, 학교, 교회, 마을 내부도로, 상수도 건립공사를 했다. 행정업무를 도맡았고, 필요할 때면 공사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산 중턱에서 사는 것이 낭만적이지는 않았다. 흙바닥에 열기설기 세운 임시거처에서 1년을 살았다. 주민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서 편하게 쉬지 못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세상적으로 살아온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했어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지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고레다라 마을 주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죄 많

은 저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앙을 회복한 그에게 이번에는 비전을 보여주었다.

“박일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돈을 보면 직업, 비전을 보면 소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왜 건축을 전공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돈과 시간을 보니까 건축이 싫어졌었는데 저는 돈 많이 벌려고 건축가가 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건축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더라고요. 그 비전이 다시 보이니까 돈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박현규 형제는 돈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비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선교지에 더 좋은 집과 더 멋진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실력을 쌓아야겠더라고요. 이제는 박봉에 야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교

지난해 4월부터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 69채(81가구)의 가옥, 교회, 학교, 마을 내부도로, 상수도 공사를 실시했다. 심각한 지진피해 이후 시급한 거처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구호가 그 시작이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가 앞장섰다.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 네팔 고레다라 마을 조기복구사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 되었다. 지난 12일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지금까지는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앞장서고 주민들이 뒤를 따랐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건강한 공동체, 정말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 가야 한다.

NGO의 눈으로 본다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 우선 현지 농업에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옥수수와 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더 생산성 있는 작물을 키워

야 한다. 이외에도 양계, 과수 같은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하다. 정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옥수수를 정미할 수만 있다면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5배는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이미 한 개의 정미기계를 보급한 상태다.

보건을 위한 변화도 절실하다. 마을에서 화장실이 있는 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세탁, 샤워가 어렵다 보니 위생이 매우 좋지 못하다. 여성들의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고레다라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켜야만 진정한 더 멋진 마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식변화 일환으로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Environment)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환경, 보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었다. 마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을 운영위원회는 저마다 생각하는 더 멋진 마을이 무엇인지 발표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였다. 주민들은 새로운 작물을 키워 보기를 원하고 있으며, 양계에도 큰 관심이 있었다. 주민들이 적합한 작물과 농사법을 찾고, 실제로 키워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도움을 주면 된다. 종자가 필요하면 종자를 구해주고, 농사법을 배우고 싶으면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해주면 될 것이다. 주민들은 하나씩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아낼 것이고,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은 끝까지 도울 것이다.

올해는 자립의 기초를 만들고, 의식변화를 통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찾아내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양계를 시작하고, 작물을 찾아 심고 키워낼 것이다. 내년에는 올레를 거름 삼아 또 한

번 작물을 키우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고레다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기까지 조금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열매가 맺힐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는다.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그들 스스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김창욱 사무총장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꽃 피는 봄이 오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순례길

어느 선교사 부부의 눈물겨운 헌신이 전주를 천국의 도시로 만든다!



▲ 전주 선교사 묘역에서 바라본 예수병원.



▲ 테이트 선교사 사택에서 시작된 전주 서문교회.



▲ 'ㄱ'자 교회 김제 금산교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한국 선교를 시작한 미국 남장로교 개척자 7인 중 한 명이다.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는 그를 “진정한 개척자”라고 불렀다. 테이트 선교사는 주로 전북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의 곁에는 의료 선교사였던 부인 잉골드 마르타 선교사가 있었다. 잉골드 선교사는 호남 최초 근대식 병원인 전주 ‘예수병원’을 세운 장본인이다. 한국을 사랑한 두 부부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모른다. 지난 20일 테이트와 잉골드 선교사 부부의 자취를 찾아 전주 서문교회, 선교사 묘역, 김제 금산교회를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개척자 7인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 선교를 자원했다. 그가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91년 신학교 2학년 때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연설을 듣고 나서부터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한국으로 파송된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다. 안식년을 맞아 고국에 간 그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을 소개하고 다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외선교를 위한 신학교 동맹 집회에 참석했다. 그 집회에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강사로 초대되었다.

189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는 테이트, 레이놀즈, 전킨을 한국선교사로 임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트 선교사의 여동생 매티 테이트와 린니 데이비스, 레이놀즈의 아내 팻시 볼링, 전킨의 아내 메리 레이번이 합류했다. 그렇게 7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다.

테이트 선교사는 동료 전킨과 함께 당시 호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를 방문했다. 전주 선교는 이듬해인 1894년부터 시작했다. 그의 동생 매티 테이트와 함께 은송리 초가집에 머물면서 선교를 시작했다.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주일예배에 나왔다. 부흥의 물결이 치는 것 같았는데 잠시뿐이었다. 전주 선교가 오래가지 못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공사관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주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1895년 동학농민운동이 끝나자마자 다시 전주를 찾았다.

주일이면 전주 은송리 초가집이 시끌벅적했다. 남자 아이들은 테이트 선교사의 방에, 여자 아이들과 부인들은 매티 선교사의 방에 가득

몰려왔다. 이때가 기회였다. 테이트 선교사는 문밖에 서서 기독교를 소개했다. 1년 반이 지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1897년 테이트의 집에서 5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들을 중심으로 전주 서문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교회가 정착할 틈도 없이 이듬해 전북 관찰사로 부임한 이완용이 완산 성역화(聖域化)를 내세우며 교회 이전을 요구했다. 결국 완산에서 화산 언덕으로 교회를 옮겼다. 테이트 선교사는 낙담하지 않고 그곳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다. 그 일대를 기독교 중심지로 조성했다. 서문교회와 부인 마르타 잉골드가 설립한 예수병원, 레이놀즈 선교사가 개교한 신흥중고등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전주 서문교회 백주년기념관에 가면 1대 담임목사 테이트를 비롯한 서문교회 성장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테이트와 잉골드 선교사 부부

테이트 선교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그의 부인 마르타 잉골드다. 그녀도 남편 못지않은 전주사랑을 자랑했다. 그녀는 의료선교사였다. 1898년 테이트 선교사가 개조한 초가 진료소에서 첫 번째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 첫날에만 100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 잉골드 선교사가 간단한 처치와 약을 조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날이 갈수록 내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복음전파에도 힘썼다. 기독교에 대한 나쁜 편견을 없앨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1899년 잉골드의 진료소가 병원으로 세워졌다. 그 병원이 바로 ‘예수병원’이다. 당시 호남

지역 최초 근대식 병원이었다. 그런데 병원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 했다. 잉골드 선교사의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잉골드 선교사가 건강을 회복한 1902년 11월부터 다시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 병원은 날마다 성장했다. 입원환자가 1902년에는 1,586명, 1903년에는 1,591명이나 됐다.

1905년 테이트와 잉골드는 8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한국 선교와 함께 그들의 사랑도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로부터 5년 후 가슴 아픈 일이 찾아왔다. 1910년 힘들게 얻은 아이를 사산한 것이다. 그 아이의 무덤이 전주 예수병원 맞은편 ‘전주 선교사 묘역’에 있다. 그곳에 가면 전북지역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선교사 묘역을 방문한 어의준 형제(19, 여주 성결교회)는 “한국 복음화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된 선교사님들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기르고

자녀를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테이트 선교사 부부는 전북지역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했다. 테이트 선교사는 1925년 은퇴할 때까지 근 30년 동안 전주 선교지부에서 일했다. 선교지부를 중심으로 서부, 남부, 남동부, 남서부 순회전도 사역을 맡았다. 그의 순회전도에 대한 열심은 선교회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순회전도는 선교사가 한국인 조사(助事, helper)와 함께 기독교가 소개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이었다. 전도지와 소책자를 배포하고, 성경을 팔고, 개종자가 생기면 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조직했다.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 성장을 도왔다. 궁극적으로는 세례를 주어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ㄱ자 교회’로 불리는 김제 금산교회다. 1904년 테이트 선교사가 모악산 입구 금산리를 방문해서 조덕삼과 이자익을 전도했다. 그들은 1905년 10월 테이트 선교

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금산교회가 세워졌다. 지금은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금산교회에서 만난 강민지 자매(27, 의정부 신곡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했는지를 보면서 후세들에게 참된 믿음을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1918년 테이트 선교사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다. 순회여행 중 지독한 독감이 걸린 것. 그 이후 심장병과 동맥경화, 고혈압이 차례로 찾아왔다. 동료 선교사들은 그에게 쉴 것을 권유했지만 아무도 그의 선교 열정을 꺾지 못했다. 아픈 내색을 하지 않은 채 28km 이상을 걸어가서 설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75개에 달하고, 그에게 세례 받은 이가 1,000여 명이나 된다. 전주지역 선교를 위한 그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의 아내 잉골드 선교사는 주로 성경공부반 지도와 가정방문을 했다. 간략하고 쉬운 요리문답도 만들었다. 이 요리문답은 어린이, 여성, 초신자들의 신앙 성장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전주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고장이다. 전주가 천국의 도시가 되기까지 테이트 선교사 부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길렀다. 꽃 피는 봄이 오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순례지다.

ㄱ자 교회란?

건물이 ‘ㄱ’자(字) 형태를 이루고 있는 예배당을 말한다. 남녀가 유별했던 유교적 인습을 반영해서 지어진 한국 초기 교회의 건축 양식이다. 당시 사회 풍습에 따라 꺾이는 중간 부분에 강대상을 두고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 남녀 예배실을 별도로 마련했다. 교회 형태가 한국 재래의 고택집을 닮았다하여 ‘고택집 예배당’이라고도 불렀다. 고택집은 일자로 된 집체에 부엌이나 외양간 따위를 직각으로 이어붙인 집이다. 현재 전북 지역의 ㄱ자 교회는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 두동교회’가 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있다.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일까?

1. 세상(죄)으로부터 돌이킴

2. 초심으로 돌이킴

진정한 돌이킴이 무엇일까? 어떻게 돌이켜야 살아날 수 있을까? 황재명 목사가 성경 속 돌이킨 사람들을 통해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세상(죄)으로부터 돌이킴

하나님께로 돌이킨 성경 속 인물들

성경에서 ‘돌이키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뒤우치며 돌아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마음과 행동의 변화 모두를 수반하는 전 인격적인 돌이킴을 지칭한다. 이러한 돌이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죄악 혹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돌이킴과 하나님을 만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돌이킴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주는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겠다.

아브라함의 개인적 돌이킴 출애굽의 공동체적 돌이킴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성경적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손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지대의 중심도시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번성한 도시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우르남무법전’이 만들어진 곳이고(함무라비 법전보다 3세기 앞선 것으로 추정), ‘달’의 신에게 바쳐진 거대한 계단식 탑인 ‘지구라트’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이런 문명의 도시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나와 척박하고 황량한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낙후된 가나안에서 문명도시 우르로 이주하는 것이 순리요, 합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출세, 명예, 부(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 믿고 있다. 그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실패한 삶이요, 패배한 루저(loser)라고 낙인찍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성경의 역사는 정반대이다. 문명의 화려함 속에 안주하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주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돌이키게 하였던 것일까? 성경이 기록한 아브라함의 돌이킴은 단순한 지역적 이동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인 동시에 죄악 된 인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돌이킴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 자란 갈대아 우르 지역은 오늘날 전쟁의 먹구름과 화염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 남부지역이다. 계속되는 전쟁과 IS의 무차별 공격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마저 파괴되고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은 약 2

천 년 전 바로 그곳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돌이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때부터 애굽의 나일강 델타 지역 동쪽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약 4세대가 지난 후 애굽 왕 람세스 2세가 거대한 토목 건축 사업을 일으키자 노예로 투입돼 혹사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모세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모세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다. 4백여 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정착시킨 땅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아갔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이킨 출애굽 사건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세상적 상식

들이 애굽에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고도로 발달된 사회·경제·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적 죄악도 함께 비례한다는 등식이다.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지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등식이다. 이 세상적 등식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고, 그 출애굽은 공동체적 돌이킴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켜준 사건이었다. 오래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개인적 돌이킴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돌이킴으로 구현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다윗의 죄로부터 돌이킴 바울의 사명을 동반한 돌이킴

출애굽이 공동체적 돌이킴을 대표한다면

“돌이킴은 ‘뒤우치며 돌아선다’는 의미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과 순리를 거스르는 돌이킴이었다. 찬란한 문명국가 애굽,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의 돌이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서 고생하는 돌이킴’이 분명하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 돌이킴도 그리 쉽지 않았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 왕 바로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재앙이 내린 후에야 비로소 애굽이라는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게 해주었다. 그것도 잠시, 바로 왕은 곧바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했고, 그들을 홍해 앞에 가둬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나님은 이때 홍해를 가르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하게 하셨다.

세상(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적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이키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만약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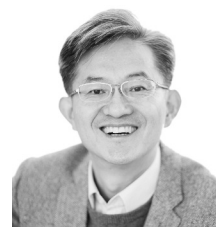
죄로부터의 돌이킴은 다윗의 삶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목동으로, 음악가로, 시인으로 성장했다.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군인과 정치가로 국가를 섬겼다.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숭배사상으로 단합시켰다. 정치·경제·군사·외교 모든 면에서 총체적 번영을 이룬 지도자였다.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위대한 업적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범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조치한 악랄하고 치졸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행 13:22). 남의 집 아내를 엿보고 급기야 그 여자를 범하고, 살인 교사죄를 범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

람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악을 밝히자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였다. 바로 이 신속한 돌이킴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최상급의 호칭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죄악의 울무와 교만함의 과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영적 민감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신속하게 돌이키는 영적 각성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돌이킴은 소명을 동반한 돌이킴이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권위 있는 바리새파인 힐렐학파의 수장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고, 초기 기독교 박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사명도 함께 받았다(행 9:15-16, 13:47). 이 획기적인 돌이킴으로 바울의 인생과 신앙이 전적으로 변화되었다. 교회의 핍박자에서 위대한 기독교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으며, 율법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복음의 수호자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돌이킴(Radical Change)은 그 어떤 종교, 철학, 학문, 사상, 교육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졌다(행 9:19-31).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이 바울의 근본적 돌이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 은혜의 열쇠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길 소망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정의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세상을 향해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죄악 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고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1다락방 1사역 1주년

사회선교는 공화사역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역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사회선교다. 사회선교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에서 사회선교를 강조하셨다.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 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설명하셨다. 예수님도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몸소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구원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셨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예배와 말씀 훈련 외의 주요 사역은 공화사역이었다. 큐티와 일대일과 같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성도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훈련이라면 사회선교는 그 훈련의 결과로써 세상 속으로 들어가 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사역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1다락방 1사역'은 사회선교를 대표하는 사역이다. 1다락방 1사역은 성도들이 최전방에서 진행하는 사역이다. 공동체 혹은 다락방별로 진행된 1다락방 1사역은 사역 현장이 곧 교회가 되는 역할을 했다. 모이는 교회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흠여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동시에 그들이 흠여져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된 1다락방 1사역은 교회와 세상과의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다. 수많은 공동체가

다양한 사역에 참여했다. 장애인, 이주민 근로자, 탈북민, 노숙인, 독거노인, 미자립교회, 요양원 등을 섬기면서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에 발맞췄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약 30%의 다락방만이 사역에 참여한 것이 그것이다.

올해도 1다락방 1사역은 계속된다. 모든 다락방(상황에 따라 공동체)이 사역에 참여하기



를 권면한다. 올해부터는 안산M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아직 사역지를 결정하지 못한 다락방이 있다면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가져 보기를 권한다.

가장 좋은 사역 방법은 1다락방이 어려운 한 가정이나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멘토사역은 물질만 제공해 주고 마는 일회성 사역보다 훨씬 열

매가 크고 많다.

1다락방 1사역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가장 먼저 다락방원들이 1다락방 1사역의 영적 의미와 당위성을 공유해야 한다. 교회가 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사역이 되거나 순장 등 소수만 참여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순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역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

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형제자매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대상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듣고 판단해야 한다.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셋째, 다락방의 능력 안에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결정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힘에 부치는 사역을 약속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

넷째,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공동체 사회선교 사역자와 사회선교 본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1다락방 1사역은 교회가 성육신적 교회, 사회 참여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한다. 따라서 이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자로 훈련 받는 것,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인 실존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선교나 해외 선교, 장애인 선교 등은 행위(실천)를 위한 사역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신앙인과 교회가 될 수 있다. 올해도 1다락방 1사역을 통해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어떤 회사의 CEO가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두 명 중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한 사람은 다소 능력은 떨어지지만 성품이 참 좋고, 또 한 사람은 다혈질에 고집이 세지만 능력이 무척 뛰어나요. 여러분이 CEO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예수님은 두 명을 다 뽑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너무나 귀하고도 멋지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주인공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부드러운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아주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죠. 때로는 주변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사용하기까지(행 4:32) 주저함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빨리 실행되기를 원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망설였을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는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감한 결단으로 온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바나바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경험할 즈음,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

디옥에 파송했어요. 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의 목회는 인격목회였어요. 능력의 설교나 행정력은 금방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킨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힘든 일이죠. 성경이 그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다(행 11:24)고 기록할 정도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안디옥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전에 드러났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할 때 다들 바울을 의심했는데 그를 믿어주고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변호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런 훌륭한 인품을 지닌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교회가 급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모이자 전문사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평신도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엄격한 율법훈련을 받은 전문사역자 바울을 다소까지 가서 모셔왔어요. 며칠 강사로 초대할 것이 아니라 공동목회를 제의한 것이었어요. 부담이 있는 결정을 하게 된 바나바는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으로 더욱 성숙해졌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은혜의 바나바 vs 진리의 바울

(행 11:26).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도 있었거니와 바울의 능력을 꺾어버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입지를 축소시키면서까지 바울을 모셔온 바나바의 인격의 결과였어요.

바울은 너무도 다혈질이었어요. 너무 성격이 강했다고 할까요? 인격자인 바나바와 불화가 생기고 급기야 큰 싸움을 벌이고 말아요. 불화의 원인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청년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명령으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조카 마가와 동행을 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처음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이들의 전도여행은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가가 여행 포기선언을 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 마가는 바울에게 형편없는 청년으로 찍혀 버려요.

세월이 흘러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요청을 바울이 매몰차게 거절해 버려요. 바울에게는 일과 사명이 중요한데 마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큰 싸움을 하게 돼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 얼굴을 파트너로 삼아 떠났어요.

착한 바나바까지 이성을 잃게 만든 바울의 다혈질적 성격은 그의 일생을 쫓아다니는 잦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분명

의로웠고, 강했고, 옳았어요. 그러나 진리는 은혜와 함께 존재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공의는 사랑과 함께 존재할 때 아름다운 법이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했을까요? 고향에 틀어박혀 있던 자신을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나바 선생님과 싸운 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걸리는 일이였을까요? 게다가 형편없는 청년으로 낙인찍혔던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바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마가는 후에 베드로 사도의 목회 비서를 하며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바울은 나중에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면서 마가와 함께 있음을 시사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니 더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착하다고 인정받은 바나바와 한 성질 하는 실력자 바울은 은혜의 바나바와 진리의 바울로 조화롭게 엮여 가신 주님이야말로 위대한 MC(Ministry Coordinator) 아닐까요?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CCF 발족 10주년 정기총회

(크리스천 CEO 포럼)

이재훈 담임목사, 이남식 회장 등 회원 90명 참석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 CCF 발족 10주년 정기총회.

크리스천 CEO 포럼(CCF) 발족 10주년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 초대회장 이용만 장로, 2대 최도성 장로, 4대 윤영각 장로, 5대 이남식 장로를 비롯한 CCF 회원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미영 자매의 특선, 이남식 회장의 환영인사 및 신입회원 환영, 2016 재정보고와 감사보고, 장학금 전달식, SIG(Special Interest Group) 발표,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이남식 회장의 비전선포 및 2017 사역 계획 발표,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및 축복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세상에 섰던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리더십들이 되어 달라”고 권면했다. 이남식 회장은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비전을 세워야 할 때”라며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크리스천 CEO 포럼(CCF) 대표로 이남식 회장이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정숙 총장에게 장학금 일천 만원을 전달했다. 학생 2명이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정숙 총장은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지만 삶의 비전이 확실한 학생을 선정해서 크리스천 CEO 포럼(CCF)의 뜻

을 전달하겠다”고 인사했다.

크리스천 CEO 포럼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체다. 2007년 발족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고, 세상에 섰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비전이다.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블, 러브소나타 및 한일 리더십포럼, 영성집회, 일과 신앙 리더십 훈련코스, 포럼세미나, The멋진당신 등의 사역을 진행했다. 올해는 청년 어벤져스 행사를 실시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아웃리치를 다녀올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헬로맘스쿨 수강생 모집

헬로맘스쿨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B에서 진행된다. 성경적인 부모교육을 원하는 예비엄마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엄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6만원이다. 문의: 010-8889-6857

하우미션스쿨 참가자 모집

하우미션스쿨(How? Mission School)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진행된다. 선교를 더 깊이 알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10-9718-7796

115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서빙고 온누리교회 115기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개강한다.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1주차는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경기도 광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열린다. 24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 당 30만 원. 자녀를 동반할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문의: 010-5471-0854

서빙고 온누리호스피스학교 개강

온누리호스피스학교가 개강한다. 3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40분 서빙고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병원이자 가정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7만원. 문의: 010-3715-1632

부천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부천 무릎선교기도학교가 개강한다.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32-322-9686

수원 성경통독학교 개강

수원 성경통독학교가 개강한다. 3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 문의: 010-9283-7871

대전 창조과학스쿨 개강

대전 창조과학스쿨이 개강한다.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대전 누리홀에서 진행된다. 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원. 문의: 042-825-3642

인천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1 개강

인천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1 과정이 개강한다. 3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에서 진행된다. 차세대 자녀와 그 부모가 대상이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4115-0691

양지 마더와이즈 개강

양지 마더와이즈 과정이 개강한다. 3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아펜젤러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31-331-8193

차세대 ‘사순절 묵상 캘린더’ 배부

매일 예수님 행하신 일과 말씀 묵상

차세대가 오늘(26일) ‘사순절 묵상 캘린더’를 배부한다. 차세대 모든 예배와 부사에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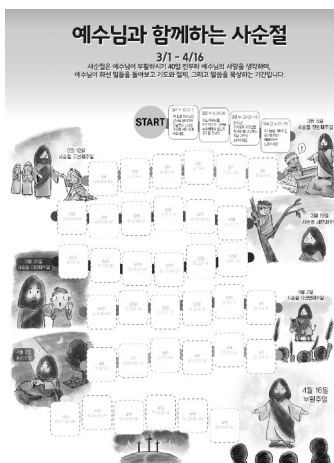
사순절 묵상 캘린더에는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일 묵상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스티커에 적힌 말씀을 묵상하고, 청소년들은 사순절 묵상 캘린더에 적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 된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과 자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

묵상 캘린더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고난주간에는 미디어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자녀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문의: 02-3215-3523

/ 김영선 기자



‘Stop Malaria’ 캠페인

아프리카에 모기장을 보냅니다!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3월 31일까지 ‘Stop Malaria’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Stop Malaria’ 캠페인은 1만5천 원을 후원해서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어린이들에게 살충 모기장

1개를 전달하는 운동이다. 살충 모기장을 이용하면 말라리아 발병률 50%, 어린이 사망률 20%를 낮출 수 있다. ‘Stop Malaria’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

terworld.or.kr)를 이용하면 된다.

후원: 573-910009-09005 하나은행

문의: 03-2271-2248

▶ 바로잡습니다

지난주 신문 6면에 보도된 기사 중에 성도의 이름이 장수경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월 양재 세례자

■양재

김재윤 621219
송미숙 720710
심수정 861203
정윤하 850912
유아
김리은 150609
김대현 옥미경
김진원 150427
김민범 김수연

김채아 161013
김부진 양보영
류 현 150113
류치영 이민혜
박이랑 150603
박인정 김유리
배정민 150606
배준국 조민아
신유진 151108
신진혁 임지원

안시안 151226
안광욱 박효정
유시원 160218
유경재 윤수미
유영후 150218
유인환 박진아
이재인 160330
이동주 신수영
이지안 160103
이창교 정유선

이희강 150510
이승환 신선비
조예나 150802
조용남 이진희
최시은 160216
최준환 계기정
입교
강효진 810505

Why Mission? 64기 수료 간증



/ 김윤호 집사(관악금천공동체)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Why Mission?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양화진에서 들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목숨을 버리고, 자녀가 목숨을 잃어도 선교를 했을까. 성도가 4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한국까지 선교사를 보냈을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목숨이 천개라면 천개의 목숨을 바쳐 조선을 사랑하겠다고 한 선교사, 어린 소녀를 위해 목숨을 잃은 선교사까지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까지 한 선교사들의 삶은 효율성만 따지던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목숨을 걸 수는 없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덕분에 유대인만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 악인은 왜 번성을 하는 가라는 의문들이 풀리게 되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득 채우고 나서 나누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기름도 신선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운반하는 통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더 채워지리라고 생각한다.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떠한 선교사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완숙 성도(양천공동체)

젊은 날의 꿈을 되찾다

2016년 3월부터 전도학교 훈련을 받았다. 같은 공동체 장로님의 제안으로 남편과 함께 전도훈련을 신청했다. '5분 전도'가 짧아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훈련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복음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유익했다.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다. 한 번의 훈련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전도학교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학교 담당목사님과 마주쳤다. 목사님은 내게 전도훈련에 다시 한 번 참여할 것을 권하셨다. 그렇게 남편과 나는 가을학기 전도학교 부조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가을학기 전도학교 훈련 중에 안산M센터를 가게 되었다. 영어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리더 한 명에게만 영어전도지를 소개하고 읽어주면 되는 줄 알고 쉽게 수락했다. 그런데 베트남예배 성도들에게 영어로 전도 강의를 두 번하는 것이었다. 전도도 잘 못하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강의한다는 것이 과분하게 여겨졌다. 전도관련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다. 내가 왜

이 일을 수락해서 이 고생을 하나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의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왜 이 일이 맡겨졌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꿈이 생각났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주로 영접했다. 그때 전공이나 직업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전공이 영어였기에 '영어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었다. 당시 나는 나가는 선교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학교를 통해 국내에 너무나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번 사역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현장으로 나를 이끄셨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는 베트남 사람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같은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열정과 순수한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젊은 날 나의 꿈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복음의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너무 감사드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사역에 이쁨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전도학교 사역자 모두를 축복한다.

예수제자학교 JDS 수료 간증



/ 서지희 성도(중계중성교회)

끝없는 터널이 축복의 통로로

나의 결혼생활은 안정적이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삶도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존재는 작아졌고, 나의 믿음은 너털너털해졌다. 형편이 좋아질수록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다. 마음은 공허했고 늘 불안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터널에 갇힌 듯 막막했다. 그때 예수제자학교 JDS의 문을 두드렸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신청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첫 강의부터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었다. 나의 내면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았다. 사실 나에게 하나님은 늘 근엄한 존재였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무서운 아버지 같았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셨다. 조금씩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 내 마음속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한 주님이자 따뜻하고 친밀한 진짜 아버지로 다가왔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되었다. 현실의 문제들보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았다. 문제가 해결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터널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과거의 나는 의심이 많은 도마였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가는 가룟 유다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예수제자학교 JDS를 통해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삶의 모든 주권을 넘겨 드리기로 결단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이 그리지 않다.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먹이시고, 채우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

제18기 부모하트스쿨 수료 간증



/ 강은숙 성도(인천방주교회)

나도 최고의 부모가

한별이가 자라면서 나와 많이 부딪혔다. 아이의 신경질적이고 급한 성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놀이 치료를 받아 보기도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교회에 다니면 믿음으로 나아지겠지 했는데 기대만큼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해결점을 찾다가 하트스쿨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하트스쿨을 통해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자녀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화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안아주기도 했다. 권장희 소장님의 강의가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내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지 못한 지난날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 이제 나도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아이 아빠도 같은 강의를 듣고 아이들 앞에서는 TV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부모하트스쿨 12주차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한별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전에는 인터넷으로 우울증 검사를

하면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양호하다고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트스쿨 다니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다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완전히 달라졌다. 감정코칭 대화법으로 대화하면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앞으로도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는 감정코칭 대화법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집에서 온누리교회까지 왕복 4시간이나 걸리지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끈기있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독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중보기도해주시는 하트스쿨 사역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트스쿨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9기 어린이/부모하트스쿨
일시: 3월 25일~6월 17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 충성홀
문의: 010-5415-3879

장로칼럼

복음의 대행진 'CGN World'



김광동 장로
(Better World
CEO, 현 주홍콩총영
사관 대사)

홍콩 'CGN World'는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과 'CGNTV'의 합성어다. 중화권 선교를 겨냥해서 두 기관의 핵심사역인 사회선교와 미디어선교를 접목

해서 세운 전략적 기관이다. 2015년 세워졌다.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의 변화에 발맞춰 반응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 다양한 종교단체와 NGO 단체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발표된 중국 정부의 변화된 종교법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구속되었다. 기존의 NGO기관들의 활동도 큰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CGN World는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의 합법적 지위를 활용한 NGO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본토에서의 선교가 막히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미 있는 활동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중국에서의 선교와 복음운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CGN World의 활동과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홍콩의 신학교, 교회,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변화에 발맞춰 반응하고 있다. 우선은 홍콩에서 더 많은 중국인들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선교 및 교육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CGN World는 중국정부의 'One Belt, One Road(New Silk Road)', '일대일로' 전략에 맞춰 무슬림 국가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대평원을 따라 유럽까지 이

르는 '복음의 대행진'이라는 비전을 품고 그 길을 따라 사역의 폭이 확장될 것을 바라고 있다. 로마의 도로가 성장과 안정을 위해 큰 몫을 감당하고, 그 뒤를 따라 전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었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CGN World 설립 이후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홍콩에서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홍콩 NGO 관례상 처음 3년은 홍콩 내에서의 활동에 주력하며 신용을 쌓고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섬김과 봉사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중국 내륙 및 실크로드로의 활동을 넓혀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 내에서의 활동은 주로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급증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홍콩 현지 교회와 함께 기금을 모아 쌀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 또한 문화센터를 열어서 성악을 통한 복음전파를 하고 있다. 성악반 회원들이 기부한 요금을 정부 병원에 기부하고 있다. 해외사역으로는 캄보디아 병원 설립에 동참해서 섬김의 장을 마련하였고, 현지인이 세운 병원과 협력사역을 준비 중이다. 꾸준하게 섬김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홍콩은 선교적 거점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 중요성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손꼽히는 국제 자유도시, 경제와 무역 등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라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기에 다양한 이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시리라 믿는다. 이러한 사역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

권사칼럼

“너는 내 영혼의 엘리베이터”



김명환 권사
(찬양공동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다. 2001년에 온누리교회로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큐티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참석하

였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주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셨다. 강권적인 방언기도와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애통의 기도가 날마다 나왔다. 일주일, 한 달, 두 달을 지나 10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나 스스로도 놀랍고 신기했다. 나 자신이 깨끗해지고, 단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허에서 비롯된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 그동안 나의 삶이 내 것만 줄만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북한 황해도 출신으로 영락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셨다.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금보다 귀한 신앙을 물려주시고 소천하셨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에 흔들림은 없었다. 집에서 원하는 믿음의 집안과 결혼도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의지조차 없었던 이혼을 하게 되었다. 한참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 살게 되면서 늘 2개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심리와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무시당하는 것과 손해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주님이 그런 내게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나의 신부가 되어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며 손 내밀어 프러포즈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주님의 손을 덥석 잡고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좋아요. 주님같이 나를 품어주시는 분은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반응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리더십으로 세우셨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Why Missions?’ 과정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다. 금강산 방문 기회를 통해 북한을 품게 하셨다. 북한선교학교도 하게 되었다. 압록강변과 백두산을 거쳐 두만강 끝까지 총 1,352km 되는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로 언제든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혼의 엘리베이터”라고 하신 말씀이 또렷하고 깊게 남아있다. 그 후 하나님은 순모임과 소그룹 모임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비전의 꽃을 피우게 하셨다.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잉태하는 것과 같아서 때가 되면 해산을 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이다. 그 비전을 주신 15년이 지난 작년 11월 평신도 사역자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 북한, 소그룹 세 가지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그림을 그려 나가실지 기대가 된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그저 그 분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오늘은 강동 온누리교회의 아홉 번째 생일이다. 강동 온누리교회 만의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진 캠퍼스가 아니다. 청년을 세워보자는 비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은 국내외에 ‘부흥 100주년’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두란노 <빛과 소금>과 함께 ‘블레싱 코리아’를 진행하며 전국집회를 계획했었다. 당시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휘몰아치기를 소망하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다. 그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즈음, 하용조 목사님은 청년 중심의 캠퍼스를 꿈꾸셨다. 그렇게 2007년 12월 양재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프라

미스공동체’를 건국대학교로 파송시켰다. 프라미스공동체는 건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성인들과 청년들이 연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를 만들었다.

둘째, 강동 온누리교회는 비전을 따라 교회의 명칭이 변하는 캠퍼스다. 청년을 중심으로 세워진 캠퍼스의 첫 번째 이름이었던 ‘프라미스공동체’가 2008년 2월 24일 ‘건대 온누리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건대 온누리교회는 청년 중심의 캠퍼스로서 건국대학교와 근처 캠퍼스 전도 등 다양한 맞춤형전도와 전국투어 찬양집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성장했다. 그러다 건대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 번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2010년 10월 3일 강동구 천호3동에 위치한 나비쇼핑몰 12층으로 예배처소를 옮기면서 ‘강동 온누리교회’라는 세 번째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2017년 2월 26일 현재까지 6년 동안 지역사회를 섬기는 캠퍼스로 계속 성장했다. 프라미스공동체, 건대 온누리교회를 섬겼던 청년들이 젊은 부부 공동체가 되

비전의 날개를 펼쳐라!

어 서로를 섬기고 있다. 차세대 교사로도 섬기고 있다. 날마다 성장하는 캠퍼스로 자리 잡았다.

사랑하는 강동 온누리교회 예쁨 영아부, 유치부, 꿈땅, 강과(강동 파워웨이브), 프라미스 U, 프라미스, 강동A,B 성인공동체, 사랑부,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새가족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첫째, 감사의 마음이다. 2007년 12월 ‘프라미스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난 9년 동안 함께 했던 모든 대학청년부 지체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단 하루라도 ‘프라미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다면 한 몸의 지체이다.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든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둘째, 위로의 마음이다. 강동 온누리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파송’이라는 축복의 의식을 통과한 경험에 있다. 대학청년부로서 파송 받은 ‘프라미스공동체’, 성인으로서 자발적으

로 파송되어 모인 ‘건대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에서 파송 받고 강동 온누리교회의 가족이 된 ‘강동공동체’는 모두 파송 받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외로움과 안타까움과 탈진을 겪어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셋째, 격려의 마음이다. 2018년 2월 25일 주일이 되면 강동 온누리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올해는 강동 온누리교회 가족들에게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이다.

강동 온누리교회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비전을 기억해보자. 2007년 프라미스공동체에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2008년 건대 온누리교회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더 하여주셨다. 2010년 강동 온누리교회 지체들에게도 용기를 충만히 부어주셨다. 올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확인하자. 그리고 잠시 피곤하여 접어 두었던 비전의 날개를 펼쳐보자.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는 것처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고, 구속하고, 얽매이고, 답답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좋은 것을 선물해주시는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던져 주는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참지 못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악에 속한 일에 참여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고, 악에 속한 것에만 일어나는 분입니다. 화나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인애가 풍부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은 유혹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

둘째,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6절).

지혜와 통찰력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능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능은 좋은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

대로 지능지수는 낮는데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정보일 뿐이지만 지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학력과 상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이큐는 좋은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말씀에 복종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는 널려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는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한 만큼 지혜가 자랍니다.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필름은 하얗고 까맣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보고 병을 찾아냅니다. 훈련을 통해서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그것을 보고 글을 쓰고 평론을 합니다. 남다른 통찰력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영적 지혜가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복종한 만큼 더 지혜로워지고, 통찰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도 말씀에 순종하다보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복종함으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셋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7-8절).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곳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철저히 복종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복종하며 살아가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억지로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켰다고 했습니다. 금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꿀보다도 달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복되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지난해 온누리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기독교 싱크탱크 한반도평화연구원의 ‘한국교회 목회자 통일인식’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 81.7%가 교회의 통일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왜 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통일이 라는 역사에 교회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세계사적 대 사건이 될 것이 틀림없다. 교회는 천국시민으로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선취한 것처럼 새 역사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참여할까. 기본 방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교회 목회자 통일인식 조사에 의하면 교회의 통일준비 활동으로 기도회(78%), 설교(75%), 기금조성(74%), 세미나 및 강연(7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회가 중국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73%), 통일 이후 탈북자들이 북한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80%), 탈북자들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및 장학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71%)에 목회자들이 큰 공감을 나타냈다. 이런 활동들은 이미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교회들은 아직 많지 않고, 그 규모도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영역별 통일선교를 제안하려고 한다. 교회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이 많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크리스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영역별로 통일선교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들이 각각의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협업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 때 마다

영역별 통일선교 제안

사람을 부르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국민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한반도에 새 역사를 열어가길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예 상태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 시키는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유를 잃고 노예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구출해 낼 충성된 종 모세, 주변 열강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다윗, 북한 땅의 무너져 버린 정치·경제의 성벽을 재건할 지혜로운 공직자 느헤미야, 무너진 교회를 수축할 사도 바울을 부르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고, 그분의 뜻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작은 예수’를 찾고 계신다.

교회는 영역별 통일선교 인력을 조직화 하는 한편, 통일선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통일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인재를 양

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독교 통일교육 교재를 책과 동영상으로 만들어 차세대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통일리더십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곳에 각 영역별로 학과와 연구소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수진과 전문가들을 모아 통일한국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날이 민족해방의 날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때를 고대하며 기도한다.



이장로 장로
(한국리더십학교 교장,
고려대 명예교수)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블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목요선교집회 심어모집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30~9:15
장소: 비전홀
문의: 이승윤 전도사(010-2701-5309)

월요어노인팅집회 찬양인도자, 반주자 모집
시간: 매주 월 오후 7시~7시20분
연습: 매주 월 오후 5시부터(변경가능)
문의: 010-4766-5221
*월 사례 있음.

아름다운 동행 부부코칭 프로그램
일정: 3월 25일~5월 20일(8주 과정)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수련회: 소망수양관)
수강료: 15만원(1박2일 수련회비 포함)
문의: 이응구 총무(010-8940-1324)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남부 교회(종로구 창신동)
일시: 3월 19일(주일) 오후 2시 남부교회
사역: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경로사 진, 진료 지원
참여: 의료 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문의: 권세윤 팀장(010-8898-3719)

CMN 여름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일정: 7월 8일 토요일~7월 17일 월요일
지역: 아프리카 케냐(뽀바사)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자원팀(비의료인)
회비: 비의료인 200만원, 의료인 250만원
문의: 오천병 간사(010-5257-4566)

제이홀 입양전 세미나
주제: 그리스도인의 입양이란?
일시: 3월 19일(주일)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꿈이홀
대상: 입양을 준비 또는 관심있으신 분
문의: 오창화 팀장(010-2049-8210)

TP 31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훈련: 6월 19일~7월 15일(4주간 합숙)
마감: 5월 15일까지
신청: <http://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살롱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에이엔키즈 초등 방과후 영어 교실
일시: 월, 수, 금 2:20~4:20 / 화, 목 2:40~5:00
대상: 유치부 상시모집(4~7세)
문의: 02-542-7152

정신건강 3월 특강
주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일시: 3월 12일 12:30-13:20
장소: 트리니티강의동 304호
문의: 010-3233-9608

인턴 캠퍼스 전임 간사 모집
분야: 재정 및 행정담당 전임간사 1명(남)
문의: 박창홍 간사(032-437-9686)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강연회
일시: 3월 7일 오후 5시30분
장소: 방주교회(방배동)
* 강사시찰소속 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7:00/2부 오전9:00/3부 오전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4:00(대청예배)/6부 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3층 꿈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 4부(청년) 오후 4: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소년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어 웰터

인천

032.437.9686

주일예배
송도 컨벤시아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컨벤시아 2층 볼룸) / 청년부 오후 2시 113호 / 차세대예배 11시 30분 영아부 104호 / 유치부 110호 / 유년부 107호 / 초등부 113호 / 어린이영어 예배 오후 2시, 109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부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이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이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본당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렌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지하1층 길보른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강원도 삼척의 아름다운 산골에서 함께 가꾸어가는 교회공동체
아이들의 순수함을 닮은 '생명나무 오케스트라'

성도들의 따뜻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삼척 광동감리교회' 편



방송 **2월 27일(월) 오전 11시 30분**
출연 **이정규 & 제이미 스톤즈**